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

유 재 용¹ · 오 의 금²

¹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²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교수

*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2010(2010-0017250).

*Level of Beliefs, Knowledge and Performance for Evidence-Based Practice among Nurses Experienced in Preceptor Role**

Jae Yong, Yoo¹ · Eui Geum, Oh²

¹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² Professor,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주요어

근거기반실무, 신념, 지식, 수행, 프리셉터

Key words

Evidence-based practice, Belief, Knowledge, Performance, Preceptorship

Correspondence

Eui Geum, Oh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3256
Fax: 82-2-392-5440
E-mail: euigeum@yuhs.ac

투 고 일: 2012년 5월 21일

수 정 일: 2012년 6월 12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3일

Abstract

Purpose: As Evidence-Based Practice (EBP) has increasingly been proven as a means of cost-effective and higher-quality healthcare, its successful implementing are challenging. This study done to identify EBP beliefs, knowledge and performance among nurses experienced as a preceptor. **Method:**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249 preceptor nurses working in 9 general hospitals in Korea. Reliable and valid questionnaires (EBP beliefs scale, Evidence Based Practice Questionnaire, Research-related activities) were us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7.0. **Result:** Perceived beliefs on EBP were relatively positive (mean score 3.57 out of 5), and the level of knowledge was moderate (4.21 out of 7). However, performance of EBP was low (3.82 out of 7). Regularity in reading research journals and searching evidences using core web-database were rarely conduc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beliefs,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EBP (all $p < .05$). **Conclusions:** This result indicates tha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facilitate EBP performance are needed among preceptor nurse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새로운 의료기술 및 지식이 발달하고, 소비자로서의 환자 권리와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는 근거기반실무(Evidence-based practice, EBP)의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 근거기반실무란 의료진이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유용한 자원 내에서 가장 최선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전문가로서 임상 숙련성과 환자 개인의 환경 및 특성과 같은 선호도를 고려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Sackett, Gray, Haynes, Richardson, & Rosenberg, 1996).

국제간호협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에서는 임상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간호연구에 참여하는 것과 근거기반실무 수행을 위해 연구결과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ICN, 2007). 또한 미국의학협회(Institute of Medicine, IOM)에서는 2020년까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요소로 근거기반실무의 수행을 선정하여 임상 현장에서의 근거 활용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간호협회 산하 간호자격인증센터(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 ANCC)와 미국 의료기관 신임위원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JCAHO)등 보건 관련 단체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정책에서 근거기반실무 수행을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고 있어 간호현장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Fineout-Overholt & Melnyk, 2004). 이러한 변화는 임상간호사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최선의 근거에 기반을 둔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경험적 지식이나 전통적 방법을 고수하는 것에 비하여 환자 결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ufer & Cleary-Holdforth, 2009; Melnyk & Fineout-Overholt, 2010). 하지만 국내의 임상간호사들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인식과 수행, 그리고 근거로서 연구결과의 활용 수준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Melnyk & Fineout-Overholt, 2010; Oh, Oh, & Lee, 2004; Oh, 2008; Thiel & Chosh, 2008). 그 중에서도 임상현장에 처음 투입되는 신규간호사들은 첫 6개월간은 새로운 역할에 대하여 배우고 임상현장에서의 다양한 정책과 절차들을 습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근거기반실무 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erguson & Day, 2004). 특히 임상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의 사용과 대상자의 가치를 고려한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Casey, Fink, Krugman, & Propst, 2004; Newhouse, Hoffman, Suflita, & Hairston, 2007). 이러한 신규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실무에서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 대다수의 병원에서 프리셉터십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리셉터십은 일정 시간동안 프리셉터와 프리셉티로서의 신규간호사간의 일대일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간호업무와 임상 지식을 교육 및 훈련을 시키는 제도로, 이론과 실무 간의 차이를 좁혀주는 효과적인 교육모델로 제시되고 있다(Kim, Kim, & Park, 2012; Moon & Park, 2004; Myrick & Yonge, 2004). 이 때 프리셉터는 신규간호사의 역할 모델로서 별도의 프리셉터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

을 갖추고,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경력직 간호사를 말한다(Myrick & Yonge, 2004).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프리셉터십을 통한 개별적인 현장교육은 신규간호사의 낮은 환경에의 빠른 적응과 비판적 사고, 임상적 의사결정, 문제해결 능력 및 임상기술의 습득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mada, Carafoli, Flattery, French, & McNamara, 2004; Halfer, 2007; Kim et al., 2000; Lee, Tzeng, Lin, & Yeh, 2009).

임상현장에서 수준 높은 간호의 제공과 근거기반실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히 신규간호사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프리셉터 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프리셉터 간호사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스스로 근거기반실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실천자인 동시에, 신규간호사에게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관심의 고취와 적극적인 수행을 위한 촉진자 및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반간호사 대상 및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부서의 근무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Cho, Song, & Cha, 2011; Oh et al., 2004; Oh, 2008), 실제 신규간호사들의 교육과 훈련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리셉터 간호사가 근거기반실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알고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임상현장에서 근거기반실무 수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근거기반실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을 파악한다.
- 3)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관련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근거 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 3차 병원에 근무하는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근접 모집단은 서울 및 경기 소재 국내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로서,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력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5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최종 24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G-Power 3.0 프로그램에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20, 검정력 .80 일 때 적정 표본 크기는 193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수 249명은 조건에 부합되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 문항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및 임상적 특성 9문항, 연구관련 특성 및 정보자원 활용 관련 측정도구 12문항,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측정도구 8문항, 지식 측정도구 14문항과 수행 측정도구 6문항으로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신념과 지식 및 수행에 관한 측정도구는 원저자들로부터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본 연구자와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간호학 교수 1인이 함께 번역을 하였다. 그리고 근거기반실무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어휘나 용어의 적절성 여부는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가 가능한 간호학 교수 1인을 통해 검증받았다.

1) 근거기반실무 신념: Sue Nagy 등(2001)이 임상 간호사들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한 EBP Beliefs Scale을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체 8문항으로, 예를 들어 '간호연구는 환자 간호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 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alpha=.77$ 이었다.

2) 근거기반실무 지식 및 수행: Upton D.와 Upton P.(2006)가 개발한 Evidence Based Practice Questionnaire (EBPQ)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의 도구는 개발 당시 24 문항으로, 지식 관련 14문항(예,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연구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수행 관련 6문항(예, '구체적 임상질문을 만든 다음, 관련 근거를 검색함'), 태도 관련 4문항(예, '근거기반실무는 시간 낭비이다')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태도 관련 문항은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도구와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태도 관련 4개 문항을 삭제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7점 척도(1='매우 부족/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탁월/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지식과 수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고, 지식 항목은 .91, 수행 항목은 .85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20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이었고, 지식 항목은 .94, 수행 항목은 .93 이었다.

3) 일반적 특성 및 연구관련 특성: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최종학위 취득 년도, 부서 내 직책, 현재 근무지 경력 기간, 프리셉터 경험 여부 및 횟수, 현재 근무 병동과 전문직 만족여부 항목 등이 포함되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Oh 등(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한 총 12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세부 항목에는 학회가입, 학술대회 참석, 논문게재 및 발표 경험, 세미나 개최 및 참석 경험, 연구 참여 경험, 간호연구 과목이수 및 근거기반실무 용어친숙도 등이 포함되며 반응 척도는 이분형(1='예', 2='아니오')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신 근거 검색 빈도, 간호연구 논문구독 빈도 및 웹기반 데이터베이스 활용 빈도(1='전혀', 3='매월 1-2회', 6='하루 수차례')와 환자 간호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활용하는 자원별 활용 빈도(1='전혀', 5='거의 매번') 등에 대해서는 각각 서열화된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2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서울 및 경기 소재 500병상 이상의 교육 및 연구 중심의 종합병원 9곳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장 혹은 간호교육담당 실무자에 연구 목적 및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진행에 관한 설명문과 동의서, 설문지를 동봉한 봉투를 각 병동

에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 배부 후 5일 후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였으며, 총 220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보다 많은 대상자 확보를 위해 서울 소재 2개의 간호대학 RN-BSN 재학생 중에서 선정된 9개 병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하고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이들로부터 35부의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한 전체 255부의 설문지 중 미비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한 24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분이었다.

5. 자료 분석

회수한 자료는 코드화하여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관련 특성,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 등은 각각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연구관련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에 관한 변수들의 수준 차이는 각각의 변수 특성별로 t-test,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하였고,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도는 .05로 설정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에 승인을 받고(IRB approval number: 2010-1034), 자료 수집 전 해당 부서장 혹은 실무 담당자의 협조를 받았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개인정보 및 연구에서 획득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관련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은 대부분 여성(n=246) 이었고, 연령은 평균 29.9세(SD=3.93)로 전체의 70.3%(n=175)이 20-30세에 속하였다. 교육수준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52.6%(n=131)이었고,

석사학위 소지자가 13.3%(n=33)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7.2년(SD=3.86)으로, 63.8%가 3년에서 7년 사이에 분포하였고, 신규간호사를 교육하는 프리셉터로서 역할을 경험한 횟수는 평균 2.8회로 나타났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7.1%(n=217)로 가장 많았고, 근무부서는 일반병동이 58.6%(n=14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71.5%(n=178)는 간호사로서 전문직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기반실무에 대하여 61.1%(n=152)가 거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대상자의 44.2%(n=110)는 근거기반실무라는 용어가 친숙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연구관련 특성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30.1%(n=75)는 간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9)

| Characteristics Mean(SD) | Categories | n | % |
|--|------------------|-----|------|
| Gender | Men | 3 | 1.2 |
| | Women | 246 | 98.8 |
| Age (years) 29.8(3.9) | 21-25 | 14 | 5.6 |
| | 26-30 | 161 | 64.7 |
| | 31-35 | 46 | 18.5 |
| | ≥36 | 28 | 11.2 |
| Education | 3-yr college | 85 | 34.1 |
| | Bachelor degree | 131 | 52.6 |
| | Masters degree | 33 | 13.3 |
| Clinical experience (years) 7.1(3.8) | < 3 | 13 | 5.2 |
| | 3-5 | 77 | 30.9 |
| | 5-7 | 82 | 32.9 |
| | 7-10 | 32 | 12.9 |
| | > 10 | 45 | 18.1 |
| Preceptor experience 2.8(2.0) | Once | 76 | 30.5 |
| | Twice | 68 | 27.3 |
| | 3 times | 35 | 14.1 |
| | ≥ 4 times | 70 | 28.1 |
| Professional Status | Staff nurse | 217 | 87.1 |
| | Charge nurse | 32 | 12.9 |
| Clinical setting | General Ward | 146 | 58.6 |
| | ICU/ER | 63 | 25.3 |
| | OR/POR | 28 | 11.2 |
| | OPD | 12 | 4.8 |
| Job Satisfaction | Satisfied | 178 | 71.5 |
| | Dissatisfied | 71 | 28.5 |
| EBP term familiar | Familiar | 139 | 55.8 |
| | Unfamiliar | 110 | 44.2 |
| EBP recognition | Very well know | 19 | 7.6 |
| | Moderately known | 78 | 31.3 |
| | A little known | 118 | 47.4 |
| | Never known | 34 | 13.7 |

Abbreviations: ICU=intensive care unit, ER=emergency room, OR=operation room, POR=postoperative recovery room, OPD=out patient department

(Table 2) Research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9)

| Variables | Categories | n | % |
|--|------------|-----|------|
| Membership in nursing academy | Yes | 75 | 30.1 |
| | No | 174 | 69.9 |
| Attended academic conferences | Yes | 157 | 63.1 |
| | No | 92 | 36.9 |
| Publication article or presentation | Yes | 14 | 5.6 |
| | No | 235 | 94.4 |
| Attended seminars | Yes | 152 | 61.0 |
| | No | 97 | 39.0 |
| Participating clinical research activities | Yes | 88 | 35.3 |
| | No | 161 | 64.7 |
| Taken nursing research course | Yes | 165 | 66.3 |
| | No | 84 | 33.7 |
| Frequency of searching evidence or information | Daily | 4 | 1.6 |
| | Weekly | 61 | 24.5 |
| | Monthly | 91 | 36.5 |
| | Several/yr | 89 | 35.7 |
| | Never | 4 | 1.6 |
| Frequency of reading journals | Daily | 1 | 0.4 |
| | Weekly | 21 | 8.4 |
| | Monthly | 52 | 20.9 |
| | Several/yr | 134 | 53.8 |
| | Never | 41 | 16.5 |
| CINHAL DB searching | Daily | 2 | 0.8 |
| | Weekly | 17 | 6.8 |
| | Monthly | 30 | 12.0 |
| | Several/yr | 66 | 26.5 |
| | Never | 134 | 53.8 |
| Medline/Pubmed DB searching | Daily | 4 | 1.6 |
| | Weekly | 32 | 12.8 |
| | Monthly | 57 | 22.9 |
| | Several/yr | 92 | 36.9 |
| | Never | 64 | 25.7 |

관련 학회나 학술단체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으며, 최근 2년 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3.1%(n=157), 연구 논문을 게재했거나 학회에서 발표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6%(n=14)이었다. 대상자가 임상연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5.3%(n=88)이었고, 66.3%(n=165)가 간호연구과목을 이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상현장에서 생긴 의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의 근거나 정보를 매주 검색하는 대상자는 26.1%(n=65)이었고, 매달 정기적으로 연구논문을 구독하는 대상자는 29.7%(n=74)이었다. 근거검색을 위한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혹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CINHAL의 경우 80.3%(n=200), Medline/Pubmed의 경우 62.6%(n=156)이었다. 대상자들이 근거와 정보를 찾기 위한 정보 자원으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동 매뉴얼, 동료 간호사 및 의료인, 간호 관

(Table 2) Research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N=249)

| Variables | Categories | n | % |
|------------------------|------------|-----|------|
| Ward manuals searching | Daily | 7 | 2.8 |
| | Weekly | 104 | 41.8 |
| | Monthly | 90 | 36.1 |
| | Several/yr | 41 | 16.5 |
| | Never | 7 | 2.8 |
| Colleague /Peers | Always | 49 | 19.7 |
| | Frequently | 119 | 47.8 |
| | Sometimes | 74 | 29.7 |
| | Rarely | 7 | 2.8 |
| | Never | - | - |
| Librarian | Always | 8 | 3.2 |
| | Frequently | 55 | 22.1 |
| | Sometimes | 80 | 32.1 |
| | Rarely | 69 | 27.7 |
| | Never | 37 | 14.9 |
| Journal articles | Always | 21 | 8.4 |
| | Frequently | 77 | 30.9 |
| | Sometimes | 77 | 30.9 |
| | Rarely | 63 | 25.3 |
| | Never | 11 | 4.4 |
| Nursing Books | Always | 48 | 19.3 |
| | Frequently | 126 | 50.6 |
| | Sometimes | 60 | 24.1 |
| | Rarely | 14 | 5.6 |
| | Never | 1 | 0.4 |
| Ward manuals | Always | 61 | 24.5 |
| | Frequently | 134 | 53.8 |
| | Sometimes | 49 | 19.7 |
| | Rarely | 4 | 1.6 |
| | Never | 1 | 0.4 |
| Internet searching | Always | 65 | 26.1 |
| | Frequently | 133 | 53.4 |
| | Sometimes | 40 | 16.1 |
| | Rarely | 11 | 4.4 |
| | Never | - | - |
| Conference workshops | Always | 7 | 2.8 |
| | Frequently | 52 | 20.9 |
| | Sometimes | 113 | 45.4 |
| | Rarely | 61 | 24.5 |
| | Never | 16 | 6.4 |

련 서적, 간호연구 관련 논문 및 도서관 사서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2. 근거기반실무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

본 연구 대상자들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은 <Table 3>에 제시되었다. EBP 신념 수준은 5점 척도 상 전체 3.57점(SD=0.44)으로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

(Table 3) Level of EBP Beliefs, Knowledge and Performance

(N=249)

| Variable Mean(SD) | Items | Rank | Mean(SD) |
|---|--|------|-------------|
| EBP ^a Beliefs 3.57(0.44) | Nursing research is important to improve quality of care | 1 | 4.10 (0.65) |
| | Reading research articles is critical for clinical effectiveness | 2 | 3.80 (0.71) |
| | Research helps nurses in their decision-making | 3 | 3.75 (0.73) |
| | Seeing other people using research findings motivated me | 4 | 3.72 (0.64) |
| | I would feel confident about changing hospital policy | 5 | 3.65 (0.73) |
| | Research helps me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of my job | 6 | 3.48 (0.68) |
| | I am enthusiastic about using research to improve practice | 7 | 3.13 (0.70) |
| | Nursing research is of interest to nurses | 8 | 2.94 (0.83) |
| EBP ^b Knowledge 4.21(0.68) | Sharing of ideas and information with colleagues | 1 | 4.45 (0.95) |
| | Ability to determine how useful the material is | 2 | 4.43 (0.86) |
| | Ability to review your own practice | 3 | 4.43 (0.87) |
| | Ability to apply information to individual cases | 4 | 4.38 (0.90) |
| | Dissemination of new ideas about care to colleagues | 5 | 4.32 (1.00) |
| | Monitoring and reviewing of practice skills | 6 | 4.31 (0.93) |
| | Knowledge of how to retrieve evidence | 7 | 4.27 (0.84) |
| | Ability to identify gaps in your professional practice | 8 | 4.24 (0.87) |
| | Ability to analyse critically evidence against set standards | 9 | 4.23 (0.90) |
| | Ability to determine how valid the material is | 10 | 4.21 (0.91) |
| | IT skills | 11 | 4.19 (0.99) |
| | Awareness of major information types and sources | 12 | 4.06 (0.92) |
| | Converting your information needs into a research question | 13 | 3.82 (0.95) |
| | Research skills | 14 | 3.59 (0.98) |
| EBP ^b Performance 3.82(0.87) | Share information with colleagues | 1 | 4.00 (1.01) |
| | Integrate the evidence with your expertise | 2 | 3.94 (1.01) |
| | Evaluate the outcomes of your practice | 3 | 3.85 (1.03) |
| | Critically appraise any literature against set criteria | 4 | 3.74 (1.04) |
| | Track down the relevant evidence after formulating PICO | 5 | 3.71 (1.01) |
| | Formulate a clearly answerable question | 6 | 3.67 (0.97) |

^a : 5 Likerts scale, ^b : 7 Likerts scale

연구는 환자 간호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항목이 4.10점(SD=0.65)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연구는 간호사들이 흥미 있어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항목은 2.94점(SD=0.8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BP 지식 수준은 7점 척도 상 전체 4.21점(SD=0.68)으로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료들과 근거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 항목이 4.45점(SD=0.95)으로 가장 높았고, 스스로에 대한 '연구 능력'에 관한 지식 수준이 3.59점(SD=0.98)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BP 수행 수준은 7점 척도 상 전체 3.82점(SD=0.87)으로 중간 이하 수준으로, '근거 적용 결과에 대하여 동료와 공유한다' 항목이 4.00점(SD=1.01)으로 가장 높았고, '실무에서 지식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과정으로 구체적인 임상질문을 만든다' 항목이 3.67점(SD=0.9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신념, 지식 및 수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관련 특성에 따른 EBP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EBP에 대한 신념은 대상자의 교육수준, 직위, 학회 가입, 임상연구 참여, 간호연구 수업이수, 근거검색 횟수, 정기적 논문 읽기, EBP 인식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l $p < .05$). 집단 간 사후분석(Scheffe) 결과를 보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이 EBP에 대한 신념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BP에 대하여 인식이 높은 그룹과 연구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군에서 신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수준도 신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프리셉터 경험 횟수가 2회 이상인 군에서 지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85$). EBP 수행 수준은 직위, 프리셉터 경험 횟수, 학회 가입, 임상연구 참여, 근거검색 횟수, 정기적 논문 읽기 및 EBP 인식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 of EBP Beliefs, Knowledge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and Research-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9)

| Variables | Categories | n | EBP Beliefs | | EBP Knowledge | | EBP Performance | |
|-------------------------------------|---------------------------|-----|-------------|----------------------------------|---------------|----------------------------------|-----------------|-----------------|
| | | | Mean(SD) | F/t(p) | Mean(SD) | F/t(p) | Mean(SD) | F/t(p) |
| Education † | 3-yr college ^a | 85 | 3.57(0.46) | 8.041 ^{a,b,c} (.001) | 4.19(0.79) | 5.007 ^{a,b,c} (.007) | 3.80(0.97) | 1.496 (.226) |
| | Bachelors ^b | 131 | 3.51(0.42) | | 4.14(0.62) | | 3.77(0.81) | |
| | Masters ^c | 33 | 3.84(0.36) | | 4.55(0.52) | | 4.06(0.83) | |
| Professional status | Staff nurse | 217 | 3.55(0.44) | 2.201 | 4.16(0.67) | 2.825 | 3.76(0.88) | 2.737 |
| | Charge nurse | 32 | 3.73(0.41) | (.029) | 4.52(0.66) | (.005) | 4.21(0.68) | (.007) |
| Clinical experience (years) | ≤ 5 | 90 | 3.58(0.45) | 0.261 | 4.15(0.69) | 0.983 | 3.79(0.81) | 0.337 |
| | > 5 | 159 | 3.57(0.43) | (.795) | 4.24(0.67) | (.327) | 3.83(0.91) | (.736) |
| Preceptor experience (times) | ≤ 1 | 111 | 3.54(0.42) | 1.356 | 4.06(0.70) | 2.685 | 3.70(0.86) | 2.131 |
| | ≥ 2 | 84 | 3.62(0.48) | (.177) | 4.33(0.67) | (.007) | 3.96(0.85) | (.034) |
| Membership nursing academy | Yes | 75 | 3.73(0.39) | 3.910 | 4.43(0.65) | 3.409 | 4.03(0.78) | 2.543 |
| | No | 174 | 3.50(0.44) | (.001) | 4.11(0.68) | (.001) | 3.73(0.90) | (.012) |
| Participating in clinical research | Yes | 88 | 3.69(0.48) | 3.236 | 4.43(0.62) | 3.849 | 4.04(0.77) | 3.048 |
| | No | 161 | 3.51(0.43) | (.001) | 4.09(0.68) | (.001) | 3.70(0.90) | (.003) |
| Taken nursing research course | Yes | 165 | 3.64(0.44) | 3.496 | 4.27(0.68) | 2.115 | 3.87(0.83) | 1.383 |
| | No | 84 | 3.44(0.41) | (.001) | 4.08(0.66) | (.035) | 3.71(0.95) | (.168) |
| Frequency of searching for evidence | ≥ Monthly | 156 | 3.68(0.43) | 5.429 | 4.37(0.60) | 4.876 | 4.05(0.75) | 5.394 |
| | Seldom-Never | 93 | 3.39(0.39) | (.001) | 3.94(0.72) | (.001) | 3.44(0.93) | (.001) |
| Frequency of reading articles | ≥ Monthly | 74 | 3.87(0.36) | 7.634 | 4.48(0.56) | 4.665 | 4.25(0.65) | 5.972 |
| | Seldom-Never | 175 | 3.45(0.41) | (.001) | 4.09(0.70) | (.001) | 3.64(0.89) | (.001) |
| EBP Recognition | Very well-Moderate | 97 | 3.75(0.40) | 5.473 | 4.44(0.56) | 4.776 | 4.02(0.77) | 3.017 |
| | A Little-Never | 152 | 3.46(0.43) | (.001) | 4.06(0.71) | (.001) | 3.69(0.91) | (.003) |

† Sheffe' test

(all $p < .05$). 직위에서는 책임 간호사 군에서, 프리셉터 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 연구 관련 활동이 많고, EBP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 수행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상 경력 기간이나 근무부서에 따른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근거기반실무 신념, 지식 및 수행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들의 EBP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EBP 수행은 신념 수준($r=.429$, $p<.001$)과 지식 수준($r=.668$, $p<.001$)과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념과 지식 간에도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r=.51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EBP Beliefs, Knowledge and Performance* (N=249)

| Variables | EBP Beliefs | EBP Knowledge |
|-----------------|-------------|---------------|
| EBP Beliefs | 1 | |
| EBP Knowledge | .511** | 1 |
| EBP Performance | .429** | .668** |

** $p < .01$

논 의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적인 제공과 환자 간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근거기반실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간호연구자, 실무자 그리고 행정가들이 임상 현장에서 근거기반실무의 촉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Melnyk & Fineout-Overholt, 2010).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에서의 저조한 근거기반실무 수행의 문제는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져 왔다(Brown, Wickline, Ecoff, & Glaser, 2009; Oh et al., 2004; Oh, 2008; Thiel & Chosh, 2008). 이에 본 연구는 근거기반실무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 임상현장에서 신규간호사의 교육과 훈련을 전담하는 프리셉터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 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은 5점 척도 중 3.57점으로 중정도 이상으로 특히 간호연구와 근거기반실무가 환자 간호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임상현장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하게 동의한 반면, 간호사들에게 간호연구가 흥미가 있거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Hart et al., 2008; Melnyk et al., 2004; Melnyk, Fineout-Oveholt, Feinstein, Sadler, & Green-Hernandez, 2008). 이는 근거기반실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프리셉터 간호사의 능동적인 측면에서의 신념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지식 수준은 중정도(4.21점)로 나타나, 국외의 병원 중심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 결과 4.56-4.60점(Brown et al., 2009, 201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식 관련 문항 중 ‘연구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연구 능력’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보고되었고, ‘동료들과 근거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와 ‘본인의 임상 실무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능력’ 문항이 가장 높게 보고되어 교육중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458명을 대상으로 한 Brown 등(2009)의 연구와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근거기반실무 수행 수준은 중정도 이하(3.82점)로 선행연구(Brown et al., 2009, 2010)의 중간 이상(4.49점-4.53점)의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와 국외의 간호실무 환경의 차이점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교육 수준은 석사 이상 소지한 고학력자가 전체 13.3%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12.4%(Brown et al., 2009)와 18.5%(Brown et al., 2010) 수준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국외의 선행연구의 경우 간호 직위 구성에서 간호관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본 연구 12.9% vs. 28.0%, 22.0%), 임상경험과 연구지식이 풍부한 Clinical Nurse Specialist (5.0%-9.9%)와 Nurse Practitioner (8.6%-21.6%)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행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8.9%로, 국내 교육 및 연구 중심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4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Oh et al., 2004)의 결과, 39.8%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근거기반실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Oh 등(2004)의 연구에서는 20.3%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13.7%로 다소 낮아진 경향이 있었지만,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인식 수준이 저조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근거기반실무’ 개념이 도입된 이후, 임상 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확산되어가고 있지만,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국내 임상현장에 근거기반실무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연구 관련 특성은 프리셉터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국내 임상간호사들과 비교하여(Oh et al., 2004)

간호 관련 학회 가입 여부(30.1% vs 42%), 논문 게재 및 학회 발표 경험(5.6% vs. 13.8%), 병동 임상연구 참여(35.3% vs 53.3%)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논문을 전혀 읽지 않는 대상자가 16.5%로, 선행연구 14.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임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자주 활용하는 정보자원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병동매뉴얼, 동료 자원으로 나타났고, CINHAL과 Medline/Pubmed 와 같은 웹 데이터베이스는 각각 80.3%, 62.6%의 대상자가 거의 혹은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국내 교육 및 연구 중심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최신 간호연구 논문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웹기반의 정보 인프라 구축이 상당부분 이루어졌지만, 이의 사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접속 후 검색까지 로그인과 같은 복잡한 절차 등이 논문을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재 프리셉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정보자원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병동매뉴얼 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감시와 함께, 연구결과를 임상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웹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보수교육과 계속교육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학회 가입이나 학회 발표 및 임상연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 및 연구관련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교육수준과 직위가 높고, 연구관련 활동을 많이 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과 수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거나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근거기반실무의 신념, 지식과 수행 간에는 높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Brown et al., 2009; Sherriff, Wallis, & Chaboyer, 2007) 결과와 일관성을 보였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근거기반실무의 수행이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가지도록,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중재를 제공한다면, 그 수행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프리셉터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실제 환자 간호를 제공하는 실무자인 동시에, 신규간호사와 일대일 관계를 형성하여 간호실무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자이자 역할 모델로서, 전반적인 간호실무 뿐만 아니라 근거기반실무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므로,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훈련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근거기반실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리셉터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긍정적인 믿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지식 수준을 향상시켜 연구

관련 활동과 근거기반실무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간호조직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의료기관의 조직 차원에서 프리셉터 교육 프로그램에 근거기반실무 개념을 도입하여 제공함으로써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학회 참가 지원 및 학술대회 발표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는 등 조직 전체가 근거기반실무를 지지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Melnik, Fineout-Overholt, Stillwell, & Williamson, 2009).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프리셉터 간호사들을 근거기반실무의 촉진자이자 챔피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원 진학을 격려하고 공동임상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병동 저널 클럽과 같은 정기적인 학술모임을 구성하고, 통계학 강좌나 간호연구 세미나 등과 같은 보수 교육을 개설하여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고, 그 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교육 및 연구중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내 전 지역의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대상자의 임의 표출로 인하여 교육수준이 의료기관별 환경적 요소들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셋째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일부 문항에 대하여 실제 그 수행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국내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과 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근거기반실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 론

본 연구는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의 수준과 이들의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은 긍정적이었고 지식은 중간 수준이었으며, 수행은 중간 이하 수준이었다. 연구관련 활동은 학회 가입, 학회 참석, 임상연구 참여 및 간호연구 과목이수하는 중간 정도의 수준

으로 나타났으나, 정기적인 논문 읽기나 근거검색을 위한 웹 데이터베이스 활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 지식 및 수행 수준 간에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간호실무, 연구 및 교육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높이기 위한 프리셉터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학회 참석 및 연구관련 활동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간호조직차원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의 마련과 실무적용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수를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수행하고, 의료기관별 혹은 근무병동의 특성에 따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 및 질적 연구와 함께, 근거기반실무의 신념, 지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간호교육 측면에서는 프리셉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간호사와 신규간호사 대상의 계속 교육은 물론,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 근거기반실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줄이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lmada, P., Carafoli, K., Flattery, J. B., French, D. A., & McNamara, M. (2004). Improving the retention rate of newly graduated nurses.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20(6), 268-273.
- Brown, C. E., Ecoff, L., Kim, S. C., Wickline, M. A., Rose, B., Klimpel, K., et al. (2010). Multi-institutional study of barriers to research utilisation and evidence-based practice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9(13-14), 1944-1951. DOI: 10.1111/j.1365-2702.2009.03184.x
- Brown, C. E., Wickline, M. A., Ecoff, L., & Glaser, D. (2009). Nursing practice,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ived barriers to evidence-based practice at an academic medical cent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2), 371-381. DOI: 10.1111/j.1365-2648.2008.04878.x
- Casey, K., Fink, R., Krugman, A. M., & Propst, F. J. (2004). The graduate nurse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34(6), 303-311.
- Cho, D. S., Song, M. R., & Cha, S. K. (2011). Nurses' perceptions regarding evidence-based practice facilitators in a tertiary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18(3), 300-309.
- Ferguson, L. M., & Day, R. A. (2004). Supporting new nurses in evidence-based practic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34(11), 490-492.
- Fineout-Overholt, E., Levin, R. F., & Melnyk, B. M. (2004). Strategies for advancing evidence-based practice in clinical settings. *The Journal of the 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35(2), 28-32.
- Halfer, D. (2007). A magnetic strategy for new graduate nurses. *Nursing Economics*, 25(1), 6-11.
- Hart, P., Eaton, L., Buckner, M., Morrow, B. N., Barrett, D. T., Fraser, D. D., et al. (2008). Effectiveness of a computer-based educational program on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skill level related to evidence-based practice.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5(2), 75-84. DOI: 10.1111/j.1741-6787.2008.00123.x
-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7). ICN Position Statement on Nursing Research. Retrieved January 11, 2012, from <http://www.icn.ch/publications/position-statements/>
- Kim, C. H., Kim, H. S., Cho, H. S., Lee, S. O., Ham, H. M., & Park, M. M. (2000). The effect of preceptorship on the job training of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2(4), 546-559.
- Kim, S. Y., Kim, J. K., & Park, K. O. (2012). The role experience of preceptor nurses in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1), 33-45.
- Lee, T. Y., Tzeng, W. C., Lin, C. H., & Yeh, M. L. (2009). Effects of a preceptorship programme on turnover rate, cost, quality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8(8), 1217-1225. DOI: 10.1111/j.1365-2702.2008.02662.x
- Leufer, T., & Cleary-Holdforth, J. (2009). Evidence-based practice: improving patient outcomes. *Nursing Standard*, 23(32), 35-39.
- Melnyk, B. M., & Fineout-Overholt, E. (2010). *Evidence-based practice in nursing and healthcare: A guide to best practice*.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 & Wilkins.
- Melnyk, B. M., Fineout-Overholt, E., Feinstein, N. F., Li, H., Small, L., Wilcox, L., et al. (2004). Nurses' perceived knowledge, beliefs, skills, and needs regarding evidence-based practice: Implications for accelerating the paradigm shift.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1(3), 185-193. DOI: 10.1111/j.1524-475X.2004.04024.x
- Melnyk, B. M., Fineout-Overholt, E., Feinstein, N. F., Sadler, L. S., & Green-Hernandez, C. (2008). Nurse practitioner educators' perceived knowledge, beliefs, and teaching strategies regarding evidence-based practice: implications for accelerating the integration of evidence-based practice into graduate program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4(1), 7-13.
- Melnyk, B. M., Fineout-Overholt, E., Stillwell, S. B., & Williamson, K. M. (2009). Evidence-based practice: Step by step: Igniting a spirit of inquiry: An essential foundation for evidence-based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09(11), 49-52. DOI: 10.1097/01.NAJ.0000363354.53883.58
- Moon, K. S., & Park, K. S. (2004). The effects of preceptor preparation education on the preceptor's role recognitio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4), 401-415.

- Myrick, F., & Yonge, O. (2004). *Nursing preceptorship: connecting practice and education*.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Nagy, S., Lumby, J., McKinley, S., & Macfarlane, C. (2001). Nurses' beliefs about the conditions that hinder or support evidence-based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7(5), 314-321. DOI: 10.1046/j.1440-172X.2001.00284.x
- Newhouse, R. P., Hoffman, J. J., Suflita, J., & Hairston, D. P. (2007). Evaluating an innovative program to improve new nurse graduate socialization into the acute healthcare setting.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31(1), 50-60.
- Oh, E. G., Oh, H. J., & Lee, Y. J. (2004). Nurses's research activities and barriers of research utiliz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5), 838-848.
- Oh, E. G. (2008). Research activities and perceptions of barriers to research utilization among critical care nurses in Korea. *Intensive & Critical Care Nursing*, 24(5), 314-322.
- Sackett, D., Gray, J., Haynes, R., Richardson, W., & Rosenberg, W. (1996). Evidence based medicine: What it is and what it isn't - It's about integrating individual clinical expertise and the best external evidence. *British Medical Journal*, 312(7023), 71-72.
- Sherriff, K. L., Wallis, M., & Chaboyer, W. (2007). Nurses' attitudes to and perceptions o knowledge and skills regarding evidence-base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3(6), 363-369. DOI: 10.1111/j.1440-172X.2007.00651.x
- Thiel, L., & Ghosh, Y. (2008). Determining registered nurses' readiness for evidence-based practice.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5(4), 182-192. DOI: 10.1111/j.1741-6787.2008.00137.x
- Upton, D., & Upton, P. (2006). Development of an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 for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4), 454-458. DOI: 10.1111/j.1365-2648.2006.03739.x